



‘지독한 아홉수’ 10승 또 다음으로

지독한 아홉수다. KIA 타이거즈 토종 좌완 에이스 양현종(32)이 7년 연속 10승 달성을 또 다음으로 미뤘다. 양현종은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쏠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4피안타 2탈삼진 3볼넷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KIA 양현종, 빈약한 타선에 4경기째 승리 불발 1승만 추가시 7년 연속 10승...역대 5번째 대기록

양현종은 5회까지 무실점 행진을 벌이는 등 좋은 투구를 선보였지만, 타선과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0-2로 뒤진 7회초 마운드를 내려간 양현종은 시즌 7번째(9승)를 떠났었다. 각종 대기록을 앞둔 양현종이다. 1승만 추가하면 이강철(10년), 정민철, 장원준(이상 8년), 유희관(7년)에 이어 역대 5번째로 7년 연속 10승을 달성할 수 있다. 또 통산 승수를 146

승으로 늘려 통산 승리 순위에서 ‘국보’ 선동열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나란히 공동 4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지난 8월28일 인천 SK 와이번스전 이후 좀처럼 승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달 4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승리와 연을 맺지 못한 양현종은 10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승패없이 물러났다. 16일 광

주 SK전에서는 5이닝 3실점을 기록한 뒤 팀이 5-3으로 앞선 6회초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팀이 6-7로 역전패하면서 승리가 날아갔다. 양현종은 이날 가족의 교통사고 때문에 급히 미국으로 떠난 팀 동료 애런 브록스의 아들 웨스턴 브록스의 이름을 모자에 적고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나 타선이 키움 선발 한현희에 막혀 침묵하고, 실점으로 연결되는 수비 실책까지 나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번에도 또 슈퍼 코리안데이’ 류현진·김광현, 내일 동반 출격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이 나란히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에 나선다. 23일(한국시간) 현지 기자들에 따르면 류현진 25일 오전 7시37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샬러필드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15분에는 김광현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다. 류현진과 김광현 모두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다.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포커스를 맞출 전망이다. 22일까지 28승26패를 거둔 토론토는 아메리칸 리그 전체 8순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이 유력하다. 가을야구 티켓을 사실상 손에 넣은 만큼 포커스도 ‘정규시즌 이후’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난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등판하고, 나흘 휴식 뒤 25일 마운드에 오르는 류현진은 30일 선발 마운드도 지킬 전망이다. ‘중요한 경기’인 30일 등판을 위해 25일 양키스전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투구 수도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상대 선발 투수는 좌완 몽고메리다. 올 시즌 2승2패 평균자책점 5.12를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양키스를 상대로 통산 3차례 등판해 승리없이 2패 평균자

책점 8.80에 그치며 약세를 보여왔다. 김광현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2일까지 26승24패로 내셔널리그 전체 6위에 올라있는 세인트루이스는 내셔널리그 전체 순위에서 7위 신시내티 레즈와 8위 필라델피아 필리스, 9위 밀워키 브루어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아직 확실할 수 없는 만큼 매 경기의 중요성이 커졌다. 김광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올해 2승무패 평균자책점 1.59를 기록 중인 김광현은 30이닝 이상 던진 내셔널리그 투수 중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있다. 순항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도 평가받던 그는 지난 20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스전에서 5⅓이닝 4실점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최종전을 통해 다시 한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셔널리그 신인왕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편, 류현진과 김광현은 한국인 투수의 동반 승리에도 도전한다. 이들은 올해 세 차례 선발로 동반 등판했지만, 한 번도 함께 승리를 따낸 적이 없다. 한국인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같은 날 승리를 거둔 건 15년 전이 마지막이다. 2005년 8월2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박찬호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5이닝 5피안타 2실점(1자책)으로 승리를 따냈다. 뉴욕 메츠 소속이던 서재응은 같은 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7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2021시즌 개막은 언제?...도쿄올림픽 주시하는 KBO와 구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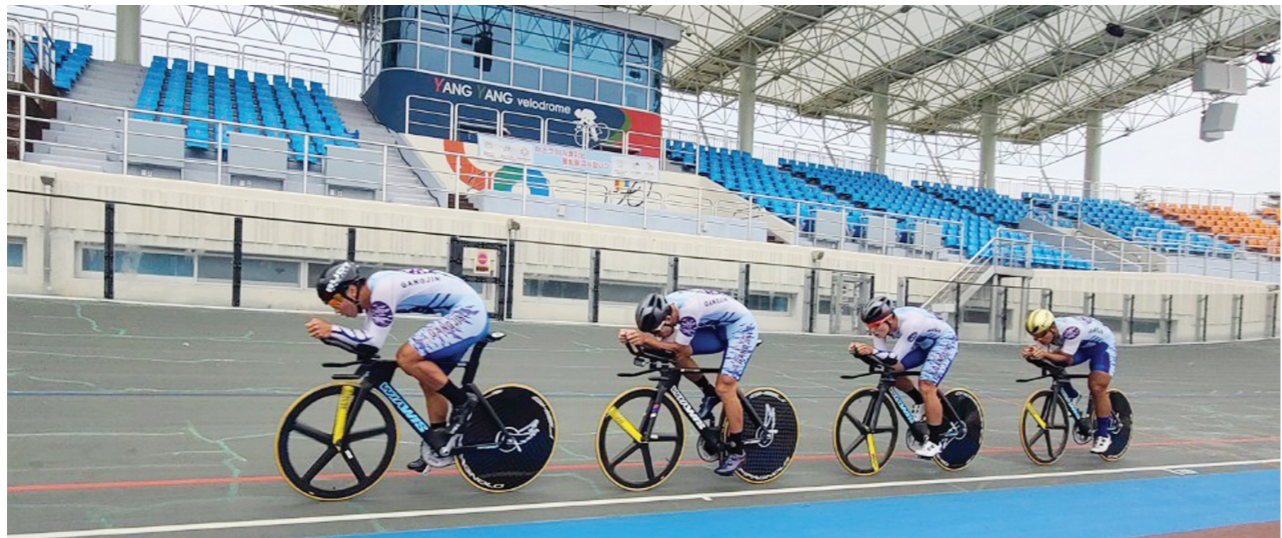
10개 구단 단장·KBO, 2021시즌 4월말 개막 논의

끝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내년 프로 야구 개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실행위원회에 모인 10개 구단 단장들은 내년 4월말 정규시즌 개막을 검토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시즌보다 늦은 출발을 논의한 것이다. 프로야구는 보통 2월 스프링캠프, 3월 중순 시범경기를 거쳐 3월 말~4월 초 개막해왔다. 정규시즌을 소화하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 포스트시즌을 마

칠 수 있도록 일정을 짰다. 올해 KBO리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5일에야 시즌을 시작했지만, 당초 개막 예정일은 3월28일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스프링캠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할 경우 추위가 조금 풀린 3, 4월에 캠프를 치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연스럽게 시즌 개막일도 미뤄야 한다. 관건은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다. 수도권 구단의 A 단장은 “실

행위원회에서 4월말 개막에 대한 의견을 냈다. 코로나19로 해외 캠프를 못 가는 만큼 개막 일정을 늦추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쿄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쿄 올림픽 개막 예정일은 7월23일이다. 만약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2019 프리미어12를 통해 출전권을 확보한 한국 대표팀도 참가하게 된다. 올림픽 기간에는 프로야구도 휴식을 갖는다. 이럴 경우 정규시즌에 이어 포스트 시즌까지 소화하는데 일정이 빡빡하다. 늦은 정규시즌 개막이 더 부담될 수 있다. A 단장은 “올림픽이 열려 프

로야구가 쉬어가야 한다면, 3월 말에 개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만약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시즌 개막을 늦추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들어 KBO는 11~12월 사이에 다음 시즌 개막일을 확정, 발표했다. 정규시즌 일정이 일찌감치 발표되면서 구단들도 마케팅 준비나 시즌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도쿄 올림픽을 주시해야 하는 만큼 2021시즌 개막일은 조금 늦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KBO관계자는 “올림픽은 물론 코로나19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강진균청 사이클팀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양양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린 2020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 대회에 참여했다. 강진균은 우수한 기량으로 종합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강진균청 사이클팀, 양양 전국 사이클선수권 종합 준우승

정점식 코치 최우수 지도자상 강진균청 사이클팀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양양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열린 2020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대회 첫날 열린 단체 추발경기(신동인, 황범연, 배승빈, 안희상)에서 값진 1위를 거둔 후 유리움 포인트 1위, 유리움 팀포인트 1위, 유리움 제의 2위, 유리움 스크래치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동인 선수가 유니움 종합 1위를 차지한 것과 더불어 개인추발 4km 경기에서 황범연 선수가 2위, 배

디스(40km)에서 안희상, 신동인 선수가 3위, 팀포인트(10km)에서 배승빈 선수가 3위, 스크래치(10km) 경기에서 김태형 선수가 3위를 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강진균청 정점식 코치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다른 실업팀의 선수들이 대부분 3년차 이상이고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처음 일반부로 참가한 선수가 주를 이루는 강진균청 사이클팀이 종합 2위에 오른 것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창단 이후 18번째 강진균청 사이

클팀을 지휘하고 있는 박경춘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강진과 나주를 오가며 선수들의 얼굴이 새까맣도록 연습했다”며 “성실한 연습에 임하고 좋은 결과까지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있을 각종대회에서도 열심히 연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숙 군수는 “선수들이 일궈낸 값진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부단한 연습과 노력의 땀방울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있도록 강진균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정현, 시즌 첫 승리 프랑스오픈 예선 1회전 통과

정현(24·한국체대·149위)이 올해 공식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단식 예선 2회전에 진출했다. 정현은 2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폴랑가로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예선 1회전에서 바티스트 크리파르(26·프랑스·346위)를 2-0(7-6(9-7) 6-4)으로 꺾었다. 올해 남자프로테니스(ATP) 챌린저 대회에 네 차례 출전해 모두 첫 판에서 탈락했던 정현은 올 시즌 5번째 공식 경기에서 첫 승을 올렸다. 정현은 예선에서 3연승을 거둬야 프랑스오픈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 2016년 처음으로 프랑스오픈 단식 본선에 올라 1회전 탈락했던 정현은 2017년 3회전까지 진출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부상 때문에 불참했다. 3년 만에 프랑스오픈 단식 본선 진출을 노리는 정현은 예선 2회전에서 렌조 올리보(28·아르헨티나·208위)와 맞붙는다. 올리보는 2017년 78위까지 오른 것이 개인 최고 세계랭킹이고, 아직 투어 대회 우승 경험은 없다. 2016년 호주오픈과 2017년 프랑스오픈에서 2회전에 오른 것이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이다. 뉴시스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왼쪽)이 20일(현지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후반 3번째 골을 넣고 도움을 기록한 해리 케인과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 4골 모두 도운 케인 “저녁 한 끼 사야지” 농담

토트넘, 공식 SNS 영상 공개 손흥민(28)의 4골을 모두 도운 해리 케인(27)이 경기 후 건넨 유쾌한 농담이 공개됐다. 토트넘 홋스퍼는 23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20일 치른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샘프턴전 5-2 승리 후 손흥민과 케인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약 9초가량의 짧은 영상에선 손흥민이 케인에게 다가가 기쁨의 포옹을 나누자, 케인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저녁 한 끼 사야지(He's paying for dinner)”라고 농담을 건넨다. 이에 해트트릭 기념 공을 든 손흥민도 미소로 화답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의 정규 리그 2라운드에서 EPL 진출 후 첫

해트트릭을 포함 혼자 4골을 폭발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케인이 손흥민의 4골을 모두 돕는 진기록을 세웠다. 경기 후 최우수선수(MOM)로 선정된 손흥민은 “4번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골까지 넣은 케인이 이 경기의 MOM이다”라며 자신보다 케인이 더 좋은 활약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우샘프턴전 대승을 견인한 손흥민은 EPL 공식 베스트11과 함께 영국 BBC, 스카이스포츠 주간 베스트11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토트넘은 23일 레이턴 오리엔트와 카라바오컵(리그컵)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상대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경기가 취소됐다. 뉴시스